

일본 진즈 · 메이커 업계 통계

정통 진즈 생산 증가 밝혀

일본의 14개 진즈 · 메이커(jeans maker)들의 협의체인 “일본 진즈 · 메이커 협의회”는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진즈 제품의 생산통계를 발표하였다.

이 자료는 일본의 통계이어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진즈 소비성향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가정하면, 생산이나 생산과는 불가분의 소비성향이나 영업활동에 그 나름대로 참고가 되리라 사료되며, 또한 여기 소개된 통계는 생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, 크게 보면 생산이 소비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사료되어 소개한다.

<표>에서 일본인들의 진즈 소비성향을 보면 대분류에서 윗도리옷(上衣)의 총계가 1천72만 9천점이 생산되고 있는데 아랫도리옷(下衣)은 7,543만점 되어 아랫도리가 윗도리의 약 7배가 생산되고 있어, 진즈는 역시 아랫도리옷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<표> 일본인의 진즈 소비성향

대분류	중분류	성인남자	성인여자	어린이(남녀)	계	전년대비
윗도리 옷	직물셔츠	1,437	1,214	1,294	3,945	11.8%
	니트제품	2,477	1,171	795	4,443	96.8%
	재킷류·포백지	770	1,215	356	2,341	143.3%
	소 계	4,684	3,600	2,445	10,729	111.7%
아랫도리	블루·진즈	20,916	17,067	2,862	40,845	122.7%

옷	컬러·진즈	7,867	20,324	2,050	30,241	80.9%
	숏팬츠·스커트지	409	3,093	842	4,344	78.9%
	소 계	29,192	40,484	5,754	75,430	99.1%
합 계		33,876	44,084	8,199	86,159	100.5%
전년대비		96.0%	105.3%	95.1%	100.5%	

윗도리를 성인남자, 성인여자, 어린이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, 성인남자 : 성인여자 : 어린이의 생산비율은 대략 4 : 3 : 2 정도가 되고 있다. 제품을 직물셔츠, 니트제품, 재킷류·포백지(직물)의 3품종으로 중분류해 보면 성인남자는 진즈의 니트제품이 57.8%로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, 성인여자는 진즈 직물셔츠나 니트제품, 재킷류 모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. 어린이 옷은 남녀구분없이 진즈 셔츠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.

아랫도리 옷은 블루·진즈와 컬러·진즈, 숏팬츠·스카트지의 3품종으로 분류한 생산실적을 보면 전통적인 블루·진즈가 54.1%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, 블루색이 아닌 흑색이나 핑크색 등을 비롯한 각종 색상의 진즈도 40.1%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성인남자는 블루·진즈가 2천만여점으로 아랫도리 소비량의 70%가 넘게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, 성인여자는 블루·진즈도 1천7백만여점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, 여자답게 2천만여점의 컬러·진즈를 소비하고 있다. 아랫도리 진즈의 소비량도 성인여자가 4천만여점으로서 가장 진즈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가장 큰 수요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.

진즈 생산을 전년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직물셔츠는 16.8%가 증가하였고, 블루·진즈는 22.7%나 증가하고 있으며, 재킷류·포백지는 다른 품종보다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43.3% 증가하고 있고, 이들 외의

품종들이 전년보다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보면, 섬유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면방업계의 어려움을 지켜 온 진즈답게 한결같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.